

check ME up!

2026년 6월 2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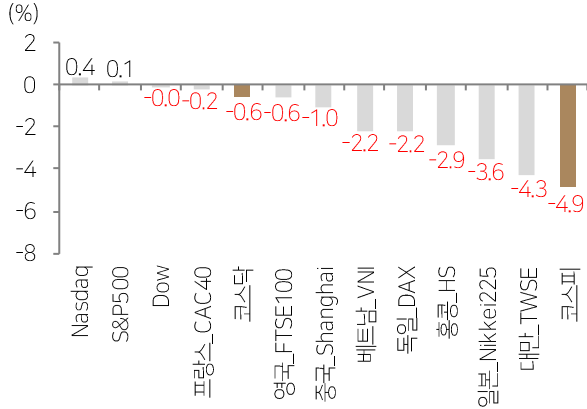
홍록은 투자전략 RA | hongre@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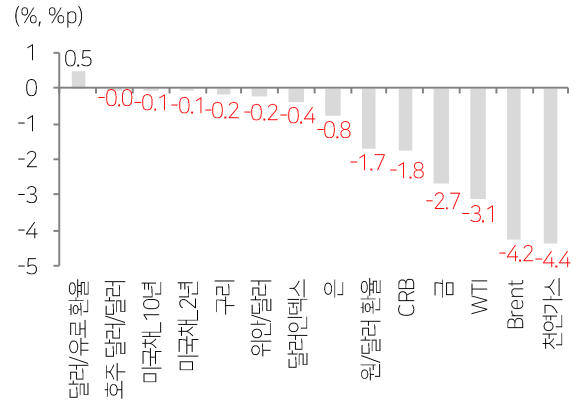
I.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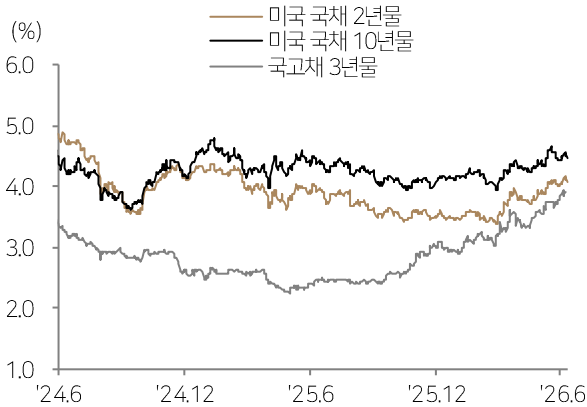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6/5일 대비 6/11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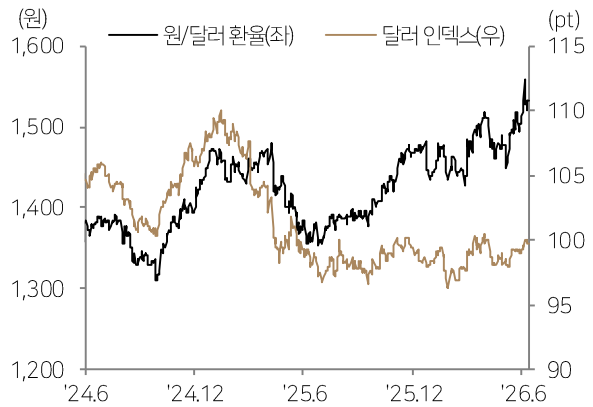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6/5일 대비 6/11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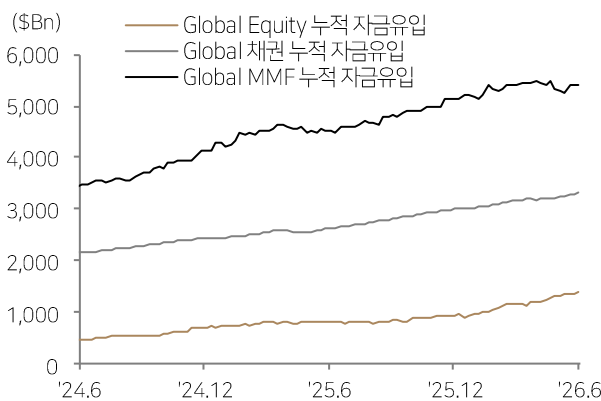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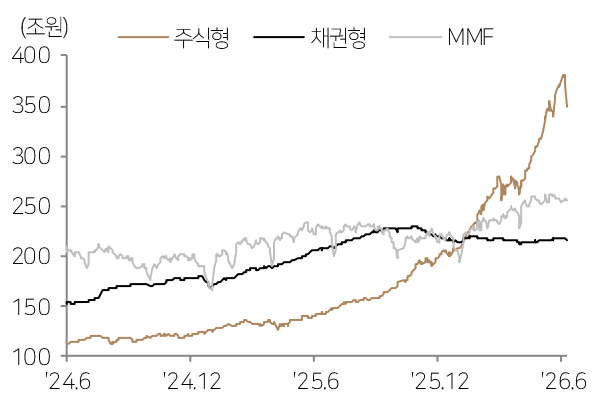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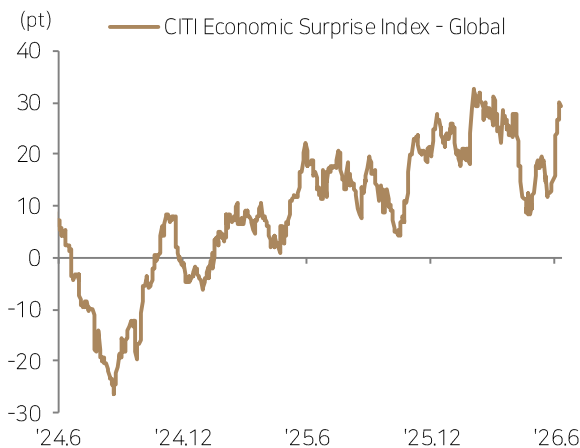
II. 경제지표 Preview

- 일단 경계하고 있던 5월 CPI는 무난하게 통과한 상황이나, 이란과의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물가 관련 불확실성은 잔존하고 있음. 3월 당시 수입물가의 가파른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했던 경험이 있어 FOMC 결과 확인 직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중간재와 유가 영향으로 상승 추세는 이어질 전망
- 일본 CPI가 발표될 예정. 지난 4월 물가는 전년 비 1.4%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으나, 10일 발표된 PPI가 4, 5월 연속으로 급등세를 보인 상황. 4월은 5.3%, 5월은 6.3% 상승. 이미 BOJ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6월 회의에서의 인상 여부보다 연내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6-15	미국	6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Index	12.5	19.6
2026-06-15	미국	5월 광공업생산	%mom	0.2	0.7
2026-06-15	미국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Index	36	37
2026-06-16	중국	5월 소매판매	%yoy	-0.3	0.2
2026-06-16	중국	5월 광공업생산	%yoy	4.3	4.1
2026-06-16	유로존	6월 ZEW 경기기대지수	Index	-	-9.1
2026-06-16	미국	5월 수출/입물가지수	%yoy	-	8.8/4.2
2026-06-16	미국	5월 주택착공건수	천건	1,430	1,465
2026-06-17	유로존	5월(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3.2	3.2
2026-06-17	미국	5월(속보) 소매판매	%mom	0.4	0.5
2026-06-17	미국	5월 미결주택매매	%mom	-	1.4
2026-06-19	한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6.9
2026-06-19	일본	5월 일본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1.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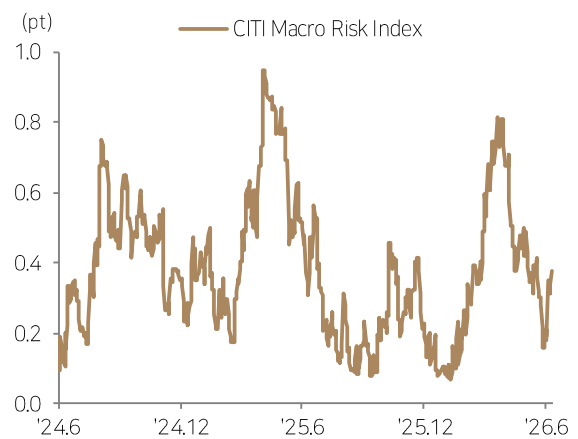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6/15 ~16	일본	상	BOJ 금융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금정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 중등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을 이유로 반대 3표(25bp 인상) 발생. 엔화 약세-에너지 물가 상승이 통화정책의 정상화 명분을 제공하는 한편, 경기 둔화 우려가 제약 요인으로 상층 중 6월 인상 가능성은 상당 부분 인지되어 있고, 오히려 동결 시 우려도 만만치 않음. 경제전망과 함께 향후 추가 인상의 적극성 시그널 강도가 포인트. 최근 엔 선물 순매도 포지션 규모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어 불안감 존재. 예상보다 강한 인상기조 시사는 글로벌 위험자산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 필요
6/16 ~17	미국	상	FO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빈워시의 FOMC 데뷔전. 4월 FOMC는 동결이었으나 이후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양상. 다행히 PPI와 수입물가의 강한 상승에 비해 5월 CPI는 예상치 수준에서 발표되며 안도감을 줌. 북중미 월드컵이 고용지표를 자극한 상황이고, 이는 서비스 물가를 자극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물가 경계심은 높을 듯 당장 인상 전망은 높지 않고, 워시의 금리 인하 선호 성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4%대 중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6~7월은 FOMC에서 비둘기파적 태도가 형성되기는 어려움. 경계심의 영역에 둘 필요. SEP의 전망 경로와 함께 인플레이션의 성격에 대한 판단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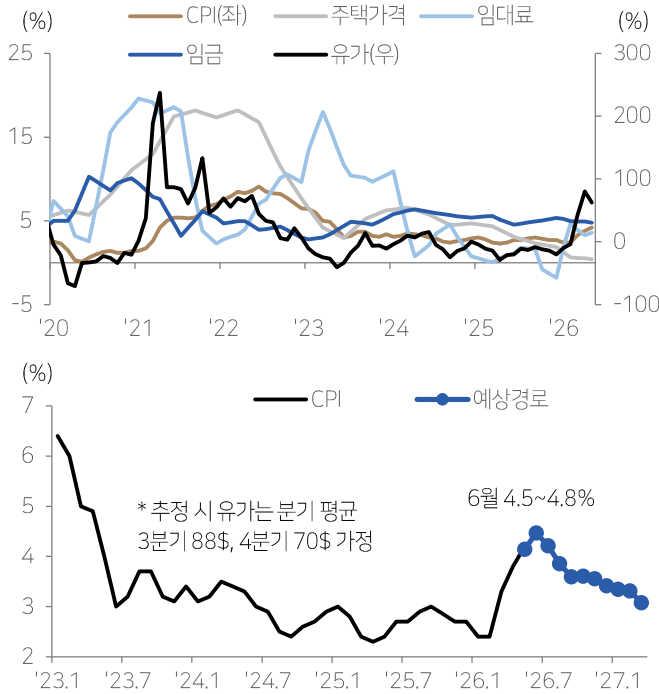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6/05~06/11) 증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PI(-4.9%), KOSDAQ(-0.6%) 하락. KOSPI는 소매(유통)(+8.6%), 미디어,교육(+3.1%), 화장품,의류,완구(+2.7%)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IT가전(-15.5%), 디스플레이(-14.4%), 자동차(-11.7%) 업종 하락.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에 글로벌 반도체 랠리가 제동이 걸리자 국내증시도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약세를 시현하는 모습. 1) 미국 물가 발표, 2)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3) 중등 불확실성 재고주, 4) 스페이스X 상장 등의 재료를 소화하며 높은 변동성 속 조정 국면 전개 DOW(-0.04%) 하락, S&P500(+0.1%), NASDAQ(+0.4%) 상승. 브로드컴 쇼크로 반도체주 매도세가 전주부터 이어진 가운데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금주 내 물가지표 발표, 스페이스X 상장, 중등 분쟁 관련 혼재된 뉴스 등에 대한 경계심으로 기술주 위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 다만 미·이란 협상이 진전을 보이자 투자심리 회복하며 반등 마감
차주 (06/15~06/19) 증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ECB의 금리 인상에 이어 다음 주 BOJ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 미 연준은 당장 금리 인상 기대가 크지는 않지만, 최근 매파적 태도를 보인 다수의 투표권자들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표출되는 회의일 것으로 전망.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고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물가지표와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경계심은 당분간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 전일 ECB의 코멘트에서도 나왔던 바와 같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적 인상이 아닌 2차효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인상에 가깝다는 점, 유가 진정 시 미국의 CPI는 하반기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완전히 선회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인플레이션과 금리,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첩되는 환경임에도 불확실성 완화 시 하반기 양호한 펀더멘털 여건은 잔존. 다음 주 BOJ와 연준의 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대응 기조가 아니라면, 하반기 긍정적 전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증가 대비 금주 목요일 증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IV.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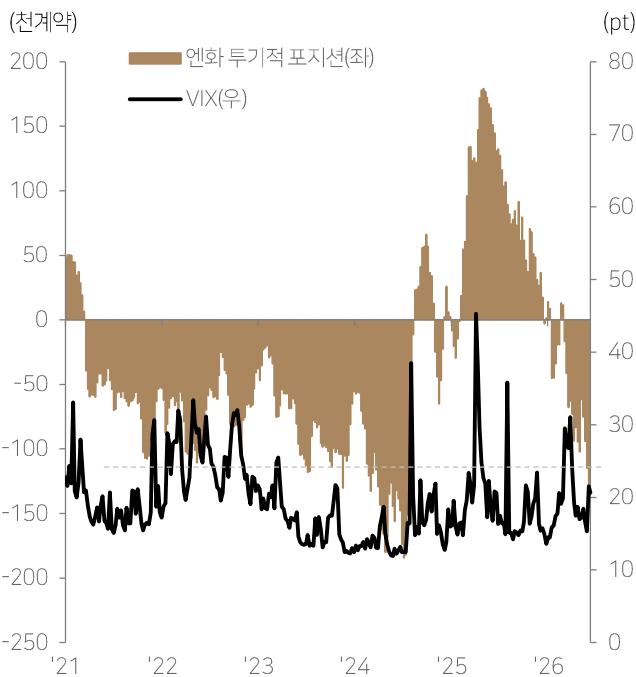
주요 물가 관련 지표들의 움직임들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하반기 미국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경로를 보일 여지



Source: Bloomberg, 다음투자증권

- 주중 발표된 5월 CPI는 예상치 이내로 발표, 시장의 불안감을 일단 진정시키는 역할을 함. 미 CPI에는 유가 외에 주거 비용과 서비스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 주택가격, 임대료 등은 3~5개 분기, 임금도 2~3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관련 물가에 영향.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플레이션 유관 항목들은 상방 압력과 거리가 있음.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지난해 내내 하향 중이었고, 임금 증가율도 우하향 중
- 유가는 보다 빠르게 반영되며 1개 분기 이내 시차. 향후 인플레이션 안정을 기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결국 유가의 안정. 아직 불확실성 잔존하나 6월 유가가 현재 수준인 평균 92\$, 7~8월 유가가 평균 83\$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좌측과 같은 경로를 기대 가능
- 그러나 아직까지 유가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향후 1~2개월은 인플레이션 상승 경로 상에 위치할 수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지표 및 통화정책 회의들은 변동성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이벤트

24년 당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가 누적되어 있는 엔 선물 순매도 포지션



Source: Bloomberg, 다음투자증권

- 6월 BOJ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 단행 예상이 우위. BOJ의 인상은 엔캐리 청산과 변동성 우려로 연결되는 경향. 비근한 예로 24년 7월 BOJ의 예상 밖 금리 인상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예고가 겹치며 핫머니성 캐리 청산이 진행돼, 극단적 변동성 확대 시례가 있음
- 현재와 당시 상황은 다름. 당시는 BOJ의 기습적 인상이었다면, 현재는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있고 당장 미국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정책금리차 축소가 급하게 진행될 여지도 제한
- 다만, 현재 엔화에 대한 선물 포지션이 -13만 계약 매도. 24년 7월 매도 포지션 -18.4만 계약보다는 작지만, 당시를 제외하면 경험적인 최대치 수준. 단순히 인상 자체가 트리거는 아닐 것. 25bp 인상과 함께 연내 추가 1회 정도 신중한 인상을 시사하는 기존 톤이 유지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공격적 인상 가능성이 시사될 경우 누적된 대규모 엔 매도 물량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업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